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Collection in Public Libraries

장 덕 현(Durk Hyun Chang)**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지역특성화장서 디지털화 방안 |
| II. 지역특성화자료 구축 현황과 사례 | V. 결 론 |
| III.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 |

요 약: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축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론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지역과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기억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역특성화자료(향토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역특성화자료는 주제와 유형이 다양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소유되고 산재되어 있어서, 자료의 수집과 장서 구축에 어려움이 많으며, 도서관 현장의 혼선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몇 곳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로컬리티를 담은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공공도서관, 장서개발, 향토자료, 지역특성화장서

ABSTRACT: This study illustrates the necessity and feasible process of constructing local collections in public libraries. One of the important responsibilities of public libraries is to collect, preserve, and provide local information in order to enhance the identity of the region and local culture and to maintain and preserve the social memory of the community. However, as the subjects and types of local information are diverse and are owned and scattered by various persons and organizations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difficult to collect materials and build collections. There is, as a result, a lot of confusion in the library field. Focusing on the case of a few public libraries that hold good local collections, this study attempted to add suggestions to build a local collection containing regional history and locality and to promote related services.

KEYWORDS: Publ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Local Collection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 ISNI 0000 0004 6477 1402)

• 논문접수: 2020년 12월 2일 • 최초심사: 2020년 12월 2일 • 게재확정: 2020년 12월 11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333-349, 2020.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333>

I. 서론

1. 연구의 배경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있어서 장서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장서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기억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 지역특성화자료(향토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서 최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영역이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물, 향토자료,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행사, 지역 출신 작가들의 저작물 등 지역의 기억을 수집, 정리하여 지역이 가진 역사적 고유성을 보존하고 후세에게 전승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의 책무이기도 하다.

지역특성화자료는 지역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이자 지역 사회와 주민의 총체적 기억으로서,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산업, 경제, 행정, 지리 등 전 분야에 관련된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전승하여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특성화자료에는 각종 행정 기록물 및 발간물, 향토자료 및 정책 및 의정 자료 등의 공공기록물, 시민단체 등의 행사자료와 간행물,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음악회, 공연, 학술회의 등에서 배포되는 자료, 족보 또는 뿌리찾기 자료 등의 민간기록물, 지역출신 작가 등 지역 인사의 저작물과 유품, 박물 및 지역에 관련된 모든 자료, 지역 기업의 경영 및 지역민들의 취업과 창업희망자의 창업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다른 곳에서 생산된 지역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단지 수집과 보존 대상으로서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지역관련 자료들을 통해 지역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지역특성화장서를 통해 지역내외에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역민이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지적, 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재건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특성화자료 등 지역 관련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2019년에 발표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는 ‘공동체 기억의 보존·공유·확산’을 13개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동체의 삶의 기억을 수집, 보존, 관리하는 체계’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인구감소와 경제적 쇠퇴, 그리고 도시화 등으로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에 전할 지역의 다양한 삶의 기억들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역특성화자료의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곽우정, 노영희 2020).

요컨대 도서관은 사회적 기억의 축적물이며, 많은 도서관들이 국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의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와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선별해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과 단체가 직접 기억 자료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도서관, 박물관, 학계 및 다양한 조직들이 이에 협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향토자료 콘텐츠를 수집하고, 도시개발 등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지역공동체의 자료를 수집, 축적하여,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의 중요한 과제이다.

2. 연구내용과 방법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장서 구축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범주, 그리고 구축 방법론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화자료에 관한 관심은 주로 향토사 또는 지역사 연구자들의 사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자료 관리에 관한 학술 연구는 많지 않고 주로 활용측면에 집중한 연구들이 있다. 즉, 장우권(2009)이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자료 관리를 위해 제도와 법률, 지역문화계획 수립, 전통문화 전승, 사회 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문화공간제공, 행사참여와 지역뉴스 발행, 디지털 재생산 및 가공과 홍보 등의 방안을 제시한 연구, 그리고 최근 노영희, 강정아(2014)가 제시한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 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곽우정, 노영희(2020)의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자료 큐레이션 제공 방안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장서개발의 측면에서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주요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사례를 조사하였다. 지역특성화장서(향토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7개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장서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대상이 된 도서관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남, 전남, 그리고 인천지역에 소재한 총 7개의 공공도서관이며, 이들을 방문하여 지역특성화장서의 규모와 구성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과정에서 거치는 절차와 구축 방법을 조사하였다. 추가로 사서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도서관 방문을 통해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질의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아울러 사서들로부터 장서 구축 계획과 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는데, 검토된 자료는 자료실 운영계획, 재정(예산)계획,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장서구성(자료수집)지침, (향토)자료선정위원회 관련 자료, 자료기증의뢰서, 주민설명회 자료, 도서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내부 결재 공문 및 업무보고 자료 등 다양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들은 지역관련 특화자료 수집에 관한 항목을 도서관의 목적에 명시하고, 지역 특성화자료실을 갖추고 있는 도서관이었다.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특성화자료 선정의 원칙은 ①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지식 및 다양한 정보 전달에 유익한 자료를 수집; ② 자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자료와 분리하여 선정·구입; ③ 자료 확충 및 이용을 고려하여 향토자료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II. 지역특성화자료 구축 현황과 사례

1.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현황

국가도서관통계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1,134개 공공도서관에 약 48만권 이상의 지역특성화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이들은 주로 '향토자료실'을 통해 관리, 제공되고 있다. 지역 특성화자료는 지역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자료로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료들을 의미하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련된 자료들로 역사 등 인문학 및 정치,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자료들과, 특히 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주요 서지, 색인 등의 이차자료, 학위논문 DB 등의 웹자원, 특히 지역 출판사 및 작가 출판물, 행정기관의 각종 간행물, 지역 학술 행사 및 세미나자료 등의 회색자료 등을 포함한다.

지역특성화자료를 생산하는 주체는 지역자치단체, 지역 내 대학교, 지역 내 연구소,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이 주가 되는데, 형태면에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 다양하다.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자료로는 족보, 세보, 문집, 시평 등의 간행물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한 서적, 민속에 관련된 사진, 서간문, 필름, 구술자료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발간된 지역 관련 자료, 외국 거주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나 외국에서 번역된 지역 관련 문헌 등도 수집 대상이 된다.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장서는 주로 분담수집이나 협력수집을 통해 획득되거나, 기증, 혹은 위탁받는 방법으로 입수된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 뿐 아니라 수집된 지역관련 자료 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소장자들과의 상호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특성화장서는 희귀본, 유일본이 많다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도 활발한 편인데, 지역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2.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사례

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의 서울자료실은 서울특별시의 발간물 및 정부기관 자료, 국내 학술지 및 서울시 정기 간행물을 소장한 자료실이다. 주요 자료는 서울특별시에서 출판한 발간물(서울시보, 의회자료, 통계연보, 현행지방자치법규, 예결산서 등) 및 서울학 관련 연구자료, 서울시 각 실·국·본부 발행 연감, 백서, 보고서, 그리고 정부 및 관련 부처에서 출판한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등 약 115,0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혹은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일반출판물(여행서적, 역사서적, 정치 및 행정 관련 자료), 소규모 독립출판사에서 발간한 서울 관련 서적도 수집하고 있다.

전시프로그램으로는 서울의 기록과 정보를 공유하는 서울기록문화관, 매월 시의성있는 테마를 선정한 후 전시하는 월간 테마 서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 간행물을 전시하는 서울 책방서가, 그리고 서울의 상징 및 유래 등을 소개하고, 대표적인 고문헌 등을 전시하는 유리 서가가 운영된다. 또한, 서울자료실의 서울 관련 자료들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정책자료실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서울행정과 정책연구, 서울학에 대한 시민들의 질의에 대응하는 '서울에게 물어보세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나. 울산도서관

2018년 4월 개관한 울산도서관은 울산지역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여 지식정보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자료실 내 울산지역자료 코너를 설치하였다. 이 코너에는 4천여 권의 울산관련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데, 개관 이후 3개월 동안 간송 임대섭 기획전시를 운영하였으며, 이어서 울산 관련 테마도서 전시 코너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울산도서관은 울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연구기관, 출판단체 등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시, 산하기관, 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특성화자료 수집·보존을 위한 방향성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주요 소장자료 디지털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자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지역특성화자료 디지털원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 작가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고 울산의 인물 소개, 지역작가 작품 전시 등을 통한 지역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 인천 화도진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은 2000년 7월 '향토자료코너'를 '향토·개항문화자료관'으로 확대개편하여 산재해 있는 개항 관련 자료들을 발굴하고, 개항과 관련된 귀중한 기록문화자료(도서, 영상, 도록, 사진, 문서, 지도 등)를 집중적으로 수서, 정리, 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인천해관문서(인천광역시문화재자료 제20호) 등 일반자료 9,500여 권, 고서 100여 권, 비도서 및 원본자료 1,600 여 종을 수집하였으며, 또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 인천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신보’와 ‘조선신문’의 1908년~1920년까지의 신문 기사를 담은 마이크로필름 등 엽서와 실물자료, 지도, 슬라이드 등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개항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데, ‘인천항토자료 목차집(역사편)’ 등의 소장도서 목차 DB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부사, 인천시사, 인천개항 100년사, 강도지 등 32권의 고서 원문 DB, 이미지 및 목차를 화도진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 항토 및 개항관련 사진전 개최, 순회전시회도 개최하고 있다.

라. 여수 이순신도서관

2019년 12월 개관한 여수 이순신도서관은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을 특화 주제로 하여, 도서관 1층에 111㎡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인 ‘이순신 라키비움’을 설치하였다. ‘이순신 체험관’에는 난중일기 번역본이 전시돼 있고, 화면을 보며 거북선을 조종하는 시설도 마련돼 있다. 대형 스크린을 통해 여수와 관련된 내용 중심의 난중일기를 연·월·일을 선택하여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3층에는 이순신 장군 관련 자료를 한데 모아놓은 ‘이순신 아카이브’를 별도로 설치하여, 역사, 향토, 호국 분야의 전문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구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이순신도서관 이순신라키비움 구성

존	코너	내용	연출매체
전라좌수영 분영, 여수	조선수군의 본거지	전략적 요충의 수군영이자 초대삼군 순군통제영 소개	인트로 영상, 프로젝터, 바닥그래픽 등
	전승의 전라좌수사	이순신 발자취 소개(충민사, 선소, 진남관, 자당기거지, 오충사 등)	그래픽 DID, 그래픽 월
임진왜란, 완벽한 승리	임진왜란	임진왜란의 원인과 시대적 배경 소개, 임진왜란 초기 모습 재현 등	그래픽 DID, 그래픽 월
	해상전투	명량해전, 노량해전 연출	이순신 모형, 파노라마 영상
	난중일기	디지털 아카이브, 이순신의효심 등 테마별 콘텐츠 구축	미디어테이블, 난중일기(복제본)
위대한 전략·전술가	강력한리더십	전쟁예측, 리더십, 어록 및 한시를 아트월로 조성	고보라이트, 그래픽 월
	돌격함대 거북선	탄생배경, 내부구조, 선소 및 건조과정 클리어비전 영상 소개	거북선 모형, 클리어 비전
	치밀한 해상전술	불패신화, 전승기록을 남긴 해상 전술 소개	그래픽 패넬

마. 대구시립중앙도서관(공사중)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은 설립된 지 100년이 지난 도서관으로서 2021년 12월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재개관할 예정이다. 국채보상운동 기념 도서관 리모델링에는 총사업비 188억원이 투입되며,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81㎡ 규모이다.

기존 도서관 면적(4천500㎡)을 그대로 살리면서 유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관하는 도서관은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의 복합 문화시설을 표방한다. 여기에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재조명할 수 있는 국채보상운동 아카이브관과 박물관 형태의 공간을 더해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세계화와 기록물을 집대성할 계획이다. 기존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존하는 동시에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Ⅲ. 지역특성화장서 구축 방안

1. 지역특성화자료개발 지침

도서관의 장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 도서관들 중 본격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 곳은 없었으며, 장서구성계획서 또는 지침의 수준에서 장서를 구축하고 있었다.

지역특성화장서 구축에 있어서도 장서개발정책은 중요하다. 공공도서관의 지역특성화자료 개발은 지역학 연구와의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즉, 지역학은 역사적, 지리적 실체로서의 지역과 공동체로서의 지역 주민, 지역출신 주요인사 등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와 인물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지역특성화자료는 지역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발굴되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지역의 정체성을 대변하여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과 지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공공도서관이 지역특성화자료의 발굴과 수집, 소장, 관리, 그리고 제공을 위한 최적의 장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지역의 대학이나, 공·사립연구소 등에서 발간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을 위주로, 족보, 문화연구에 대한 서적, 민속에 관련 자료 등의 지역학 및 향토자료와 특성화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지역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자료를 제공하여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영상, 사진 등의 자료는 시의적절하게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내에 지역특성화자료 수집의 목적, 수집범위, 수집대상, 수집전략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본격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역특성화자료 수집 지침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대

안이 될 수 있다. 그 대략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도서관 지역특성화자료 개발 지침(안)〉

1. 국내자료

1.1 일반자료

지역특성화자료는 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 즉 지역사(local history)에 관한 자료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지역 출판사 및 작가의 저작,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자료들로서, 주로 역사를 비롯한 인문학 자료,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등 사회과학 분야 자료들이 수집대상이 된다.

지역특성화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표준협약을 근거로 하는 관련기관들과의 협약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납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지역학 연구 등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지역학 연구에 필요한 참고자료들은 주로 서지, 색인, 서평 등의 이차자료로 구성된다. 지역 대학에서 생산된 혹은 지역에 관한 학위논문 등은 KERIS 또는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

1.3 정책자료 및 회색문헌

중앙정부의 지역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및 연구소, 기타 공공기관의 각종 간행물, 지역관련 자료, 통계, 백서, 연감, 지역 행사 및 세미나자료 등을 적극 수집한다. 지역학 관련 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보고서/정부간행물 중 중앙정부의 간행물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의 정책정보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 내 연구원이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자료는 관련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집한다.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자료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원을 링크하거나 자체적으로 디지털화작업을 실시하고 홈페이지에서 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1.4 연속간행물

학술지는 지역 관련 연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신자료 위주로 수집한다. 일반 잡지는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 자료로서의 장기적 가치를 고려하여 수집한다. 연속간행물이 인쇄본 및 디지털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자료를 함께 구독하되, 잡지의 경우는 인쇄본을 우선 수집한다.

1.5 영인·복제자료

지역 관련 연구를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 또는 장서의 완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인·복제 자료를 수집한다. 필요한 경우 저작권 허용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자료를 제작할 수도 있다. 국내 타 기관 및 해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일 경우 적절한 협약절차를 거쳐 지역관련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영인·복제하여 수집한다.

1.6 디지털자료

디지털정보자원은 대표적인 서지DB, 역사, 정치, 경제 분야 전문지식DB, 지리DB, 뉴스DB, 지역학 연구를 위한 학술정보(통계DB, 조사데이터, 법령정보, 지도자료, 정책문서 등), 희귀자료와 절판자료 DB 등을 수집대상으로 한다.

1.7 멀티미디어자료

멀티미디어자료는 원본수집을 통한 원형보존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경우, 웹자원 위주로 수집하며,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아카이빙 조건을 라이선스에 명시하도록 유의한다.

2. 해외자료

2.1 일반자료

해외에서 발간된 지역 관련 자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집하되, 교육 또는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중점 수집하고, 이어서 일반자료를 수집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작가의 작품이나 외국에서 번역된 지역 관련 문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2.2 참고자료

지역에 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우선 수집하며, 색인, 서지 등의 이차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자료의 최신성 유지에 유의한다.

2.3 연속간행물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통계, 연보/연감 등은 위탁기관 지정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단, 지역과 관련된 자료를 선별적으로 수집하며, 학위논문과 학술지는 웹DB 등의 전자자원을 활용한다.

2.4 디지털자료

해외에서 발간된 온라인 전자자료는 주요 국가의 출판물, 서지DB, 사실DB, 통계자료, 뉴스데이터 등을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2.5 멀티미디어자료

해외에서 발행된 멀티미디어 자료 중 지역에 관한 자료는 정보의 정확성과 가치, 이용범위 등을 판단하여 선별적으로 수집한다.

3. 특수범주자료

3.1 낱장자료

브로슈어, 팸플렛, 전단지, 문서, 사진, 그림 등의 자료는 자료 건당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화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낱장자료는 클리핑 등의 방법으로 원본보존하고, 디지털화된 복제본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 국립여성사전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Open Archives)' 등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이나 그림의 경우 작가로부터 저작권 양도 또는 위임이 선결되어야 한다.

3.2 구술자료

구술자료는 사람들의 구술(oral testimony)을 녹취, 녹화, 전사한 자료로서, 인터뷰를 통해 표준적인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기억을 채록한다는 점 때문에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구술자료는 인간의 주관적 기억을 통해 재현된다는 특징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물(들)이 기억하는 지역의 과거와 일상을 육성으로 채록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 또는 제작한다.

구술자료는 자료를 축적한 후 테마별로 묶어 구술자료집의 형태로 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디지털화하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도 제공하기도 하지만, 구술자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역의 여성사,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증언, 도시화로 인하여 사라지는 마을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여 지역 구술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조: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구술자료관)

2. 지역특성화자료 수집

가. 수집방법

(1) 기본방향

지역에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지역의 유래와 존재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가 존재한다. 지역이 공동체로서 경험한 사건들에 관한 기억과 기록도 산재한다. 이들이 충실하게 수집되어 관리되면, 자료와 기록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민)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시민과 주요 관련인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적 속성과 삶의 기억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망라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지역특성화자료 수집의 기본방향이다.

지역특성화자료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번역서 등을 위주로, 족보, 문집, 문화연구서적, 민속 관련 자료, 신문자료, 사진 등을 포함하여 구축되는데, 이러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구축하고, 디지털 자료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역 관련 자료를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특성화자료 수집 협력망 구축

지역에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한다. 조사 대상 도서관 대부분이 개관에 앞서 '향토자료실'을 구축할 당시에는 지역 내 향토사학자, 문화원, 문중 등을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기증받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협력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노영희, 강정아 2014). 특히, 역사적 사건의 경우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콘텐츠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도서관 내에 특화자료 구축 전담팀을 조직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료 기증, 교환, 위탁 및 구입에 의한 수집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수집된 지역관련 문화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서관에 향토문화콘텐츠 전시공간을 설치하거나,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역특성화장서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타기관과의 상호대차제도를 통한 이용활성화, 지역특성화장서를 활용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수증

지역특성화자료는 절판 등의 이유로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특성화장서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관련 자료를 지역민들로부터 기증받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수증자료는 소장 경위와 출처, 소유권이 분명한 자료여야 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출판사, 고서점, 기관, 문중, 개인

등에 기증을 의뢰하여 수증한다. 개인 소장자들이 소장한 문헌에 대한 조사와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와 면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장 수여 또는 필요시 개인문고 설치 등의 후속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기증은 지역 내·외 캠페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민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여 활용되지 않는 자료를 도서관에 기증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자발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 기증된 자료는 상태 확인을 거쳐 귀중 자료나 훼손 우려 자료 등은 공동 보존서고에, 나머지 자료는 자료실에 비치하여 전시한다.

자료 공모를 활용하기도 한다. C도서관의 경우 지역특성화자료 수집을 위하여 자료 기증을 유도하고 있었는데 수집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골동품, 고서, 옛 농기구, 그림 등 다양한 지역특성화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무상기증 조건으로 전시자료 기증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기록해 주는 조건으로 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최근에 개관한 B도서관의 경우에는 도서관내에 지역학 자료실을 설치하고, 개관 6개월 전부터 '오래된 지금, 새로운 그때'라는 주제로 지역특성화자료 공개모집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 등 지역 특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전국으로부터 수증하였는데, 사진, 필름, 박물관 등을 포함한 총 300여점의 지역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증된 자료들은 교수, 연구자, 기록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였다.

(4) 위탁

수집대상 자료가 희귀본이거나 고서/고문서인 경우에는 소장자들이 기증보다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보존과 관리만 도서관에 위탁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도서관에서는 지역특성화자료 수집 및 개인, 문중 및 기관 소장 고문헌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한 위탁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문중, 단체 등이 위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도서관에서는 사전 현장 조사 및 간략서지 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대상을 정하고 도서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료를 인수한다. 위탁대상 자료가 고문헌인 경우 훈증 소독을 거친 후 상세 서지조사와 목록을 작성하고, 위탁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을 업로드 하여 관련 연구기관, 연구자, 위탁자에게 제공하고 홍보 자료를 배포한다.

(5) 구입

D도서관의 경우 자료구입 예산에 일정 금액을 배정하여 지역특성화자료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간행물 뿐 아니라 박물관이나 유물 등도 구입 대상이 되며, 구입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구입대상 자료는 지역 관련자료로서, 1) 외국에서 발행된 지역관련 자료 중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 2) 지역과 다른 도시 및 사회를 비교한 자료, 3) 지역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자료,

4) 개화기의 역사를 기록한 원본자료; 5) 개화기의 사진 및 엽서 등; 6) 당시 지역의 생활상, 풍속을 보여주는 신문, 도서, 팸플릿, 문서 등, 그리고 7) 지역의 다양한 향토 역사 자료 및 기타 지역학 연구에 가치 있는 자료들이다.

구입계획이 공지되면 고도서 취급서점, 문화재 매매업자 및 개인 소장자 등이 응하는데, 매도신청서가 접수되면 → 향토자문위원 심의대상 자료 통지 → 실물자료 접수 → 향토자료 자문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및 매매협의 → 구입 계약, 제외 자료 반환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역특성화자료의 결정은 자문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 결과에 의하며, 구입 가격은 자문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구입대상으로 결정된 자료는 매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대금 지급과 함께 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도서관에 귀속되고 매매가 종결된 자료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지역특성화장서 디지털화 방안

1. 지역특성화자료 DB구축

가. 기본방향

다수의 공공도서관이 수집된 향토문화콘텐츠의 보존과 활용을 위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온라인 지역특성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구축한 지역특성화 데이터베이스는 특별장서로서, 예를 들어 지역학 범주 내에서 다양한 주제분야의 컬렉션으로 구축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컬렉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종이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한 매체인 경우가 많다. 콘텐츠 수집 범주는 주제측면에서 역사 등의 인문분야 뿐 아니라 경제, 지리, 도시계획, 행정, 사회학 등 사회과학 주제들로 공간, 경제, 산업, 산업, 취락분포, 인구이동, 교통, 토지이용, 도시개발, 환경분석, 자원관리, 지역정책 등의 영역이 있다. 또한 전체 장서의 매체적 유형구분과 주제 구분을 그대로 적용한다.

지역이라는 범위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분야와의 연결을 기하고 새로운 분야로의 확대가 가능한 유연한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지역커뮤니티와의 소통과 주제발굴을 위해 네트워크 상의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수집과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매체적 특성과 콘텐츠적 특성을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서 기존의 수직적 구조, 수평적 확장 구조의 유형 구분보다는 네트워크 형태의 확장 가능한 형태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DB구축 범주

지역특성화장서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핵심은 지역의 역사·문화·산업·행정 등 전 분야의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 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 행정 기록물 및 지자체 간행물, 의정 자료 등(공공 기록물),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의 행사자료와 간행물 뿐 아니라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연례 행사 등의 자료, 족보 및 뿌리찾기 자료 등(민간기록물) 등 일반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콘텐츠가 포함된다.

자료에 대한 해제 제공도 중요하다.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가운데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가 높으면서도 해제가 되지 않은 것들은 선정하여 해제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다. 지역사 관련 전문가 및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해제위원들의 전문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해제원고를 작성하고, 해제가 완료된 자료 가운데 유일본·희귀본 등 가치 있는 주요 자료를 주제별 혹은 형식별로 선별한 후 원본 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특성화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DB 활용

지역 공공도서관이 구축하여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 자료 중 저작권이 소멸되었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저작권법(제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 의해 협약을 체결한 공공도서관 등에서 정해진 도서관보상금 제도에 준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도서관이 구축한 소장원문 중 가치 있는 디지털 정보자원은 큐레이션하여 제공하고 원문이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원문소장기관으로 링크를 걸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대표도서관의 경우는 지역 자료가 수집되어 보존서고로 이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 보존대상 자료 이관 과정에서 디지털화 대상을 선별하여, 디지털화 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자료가 일정량 수집되고 난 뒤 특정 기간을 정해 일괄 디지털화 작업을 실시하거나, 수집되는 자료의 양과 도서관의 업무 상황을 고려하여 단축된 기간에 작업할 수도 있다. 또한 재난 관리를 위하여 디지털파일은 도서관 내부 서버에 탑재하고 매체 변환을 통해 대체포맷을 준비하는 등 보존 방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지역특성화자료로 등록된 다양한 고문서 자료, 사진자료, 중요 기록자료, (고)전적, 지도 등의 디지털 복제를 통해 기관의 아카이브 자료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구입, 기증, 교환, 자체발간 등 수집방법별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F도서관)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들은 지역자료 데이터베이스의 Open API 제공을 통해 목록 공유와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지역특성화자료 포털을 구축하고 하부 단위로 지역자료학습관(동영상 중심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 지역탐방(지역의 자연유산, 인물 등 분류별 콘텐츠 제공); 지역문화유산체험관(음성해설/영상/SNS/AR/VR 등 체험 콘텐츠)을 구축하는데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3. DB 구축시 고려사항

조사 대상 공공도서관의 담당자들은 지역특성화장서의 구축은 사실상 지역대표도서관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소장자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 단위의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자료를 수집하고 특히 디지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중소단위 공공도서관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사업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었으며, 이 경우 지역 공공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하여 기관의 디지털원문 DB 검색·열람 서비스를 연계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역문화유산 아카이브를 플랫폼화 하여,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을 통해 디지털화 된 지역자료를 자체적으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V. 결 론

공공도서관의 장서는 사회의 지식 기반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자원이며, 지역의 과거와 현재적 관점을 반영하여 미래로 전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이 지역특성화장서의 구축에 유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지역특성화자료(향토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축한 주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과 관련 내부분서,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토대로 공공도서관 지역특성화장서 구성의 방법론을 짚어보았다.

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공동체가 생산하고 접근하는 정보의 허브이자 지역의 정보게이트웨이이다. 공공도서관이 지역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자료와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들에 대한 수집력을 높이고, 역사를 증거하는 자료들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며, 미소장 자료의 수증 및 기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의

최신 정책자료, 지역 내 언론보도, 각종 업무 자료,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정보, 최신 정책 및 법률 정보, 지역발전연구원 등 유용한 자원에 대한 링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정책정보에 대한 수집력을 확대하고, 지역 및 기관, 기초자치단체, 연구기관 자료실과의 협력에 의한 자료 발간정보 파악 및 수집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치단체 소장자료 통합목록 구축으로 지역학자료의 소재 파악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역도서관이 이 자료들에 대한 서비스포인트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지역특성화자료 소장자들의 기증이 저조하여 수집이 어렵고, 관외대출에 제한이 있어서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독립된 자료실을 설치할 경우 보존, 보관 등에 소요되는 장비와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지역자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증, 위탁, 구입 모두 쉽지 않아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존과 이용 측면에서도 일반 공공도서관에서는 보존을 위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고, 이용자 또한 많지 않은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지역특성화장서 구축은 공공도서관의 책무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역특성화장서는 도서관 기반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지역에 산재한 고문헌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지역 기반의 인문콘텐츠를 구축하고, 역사 등 인문 영역과 디지털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은 고서 및 고문헌의 해제와 국역 작업을 통해 고전을 대중화하고, 지역학 연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내 민간 소장 고문헌을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면, 지역 기관 및 민간(개인, 문중, 향교, 사찰, 사립박물관 등)이 소장한 고문헌의 발굴 조사, 고문헌 목록 확보와 원문 디지털화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지역관련 연구 역량이 확장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원문DB 구축을 지원하고, 민간 소장 고문헌의 안정적인 과학적인 보존을 위해 고문헌 소장자들에 대한 맞춤형 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위탁된 고문헌에 대한 상세한 서지목록DB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으로 많은 도서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족보자료실을 통해 전문화·세분화된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연구자들을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나 가계의 역사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 소장 고문헌과 향토자료에 대한 신규 문헌을 발굴하고 귀중자료는 디지털화 또는 위탁보관을 지원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조사 대상 도서관 중에는 지역에서 발굴한 자료에 대하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한 곳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눈에 뜨인 것은 공공도서관에 지역특성화자료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지역특성화자료는 수집과 소장, 보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콘텐츠로 재가공되고, 이를 통하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입지가 굳건해 지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장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유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사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지역학, 서지학, 고전자료학 배경이 있는 사서를 배치하여 지역특성화자료 전담인력으로서의 역량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통해 국내 소재 지역 관련 문헌 연구, 해외에 소장된 지역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여 해외에 산재된 우리 문헌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지정보를 구축하고 원문에 가까운 복제본·디지털자료 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도서관에 소장된 희귀본에 대한 역서를 발간하여 일반인이나 연구자들의 지역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한문으로 쓰인 고문헌 국역 등의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지역특성화자료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이 연구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공공도서관이 건립되면서 향토자료실을 설치하고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다만, 하드웨어 못지않게 공공도서관에서 지역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담아 미래를 기층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지역특성화장서에 대한 인식과 최적의 지역특성화장서를 구성하기 위한 전문적 역량 구축작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우정, 노영희. 2020. 공동체 기억보존센터로서의 도서관 운영 및 큐레이션 제공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2): 53-70.
- 김영기, 장덕현, 이용재. 2015. 지역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가칭)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51-70.
- 노영희, 강정아. 2014. 공공도서관에서의 향토문화콘텐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67-93.
- 장우권. 2009.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콘텐츠의 관리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지역의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71-292.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통계. <<https://www.libsta.go.kr>>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ang, Wookwon. 2009.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Practical Use Program of

-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71-292.
- Kim, Youngkee, Durk-Hyun Chang, and Yong Jae Lee. 2015.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lan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ing Library: with a Reference to the Library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51-70.
- Kwak, Woojung and Younghee Noh, 2020. “Study of the Plan for Library Operation and Curation Provision as a Community Memory Preservation Center.”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2): 53-70.
- Noh, Younghee and Jung-Ah Kang. 2014. “A Study on Vitalization Methods of Local Cultural Contents in the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67-93.

